

‘통속성’ 개념의 분화/분단과 문화평등주의*

李하나**

- | | |
|--------------------------|---------------------------|
| I. 머리말: 개념과 감성 | IV. 해방후 남북 ‘통속성’ 개념의 분단 |
| II. 문화평등주의의 대두와 ‘통속교육’ | V. 맺음말: 감성의 분단과 두 개의 평등주의 |
| III. ‘통속’의 분화와 ‘통속성’의 내용 | |

• 국문초록

이 글은 식민지시기부터 해방후를 거쳐 1990년대에 이르는 시간 동안 문화예술 및 교양오락 분야에서 끊임없이 언급되고 재정의되었던 개념 중 하나인 ‘통속’과 ‘통속성’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감성의 분단사’라는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남북의 분단이 단지 국토의 분단, 체제의 분단일 뿐만 아니라 개념의 분단, 나아가 감성의 분단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식민지시기 ‘통속’의 개념은 처음엔 ‘보통’, ‘누구에게나 통하는’ 등의 일상개념으로 시작되었으나, 1930년대 중반 이후 예술 개념으로서의 ‘통속’은 현저하게 ‘저급’과 ‘저속’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일상 개념으로서의 ‘통속’과 예술개념으로서의 ‘통속’은 해방후 각각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 전개되었다. 북한에서는 ‘통속’의 긍정적 의미가 확대되어 문화예술에서도 ‘통속성’이 지향되었으나, 남한에서는 ‘통속’의 긍정적 의미가 사상되고 부정적 의미로만 사용되어 ‘통속성’은 지양되어야 할 무엇으로 치부되었다. 북한에서 ‘통속성’은 ‘인민성’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여겨진 반면, 남한에서는 ‘통속성’의 문제가 ‘대중성’과 함께 거론되어 ‘대중성’에 포함되어 이해되기도 하고 ‘대중성’의 하위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어느 쪽이든 ‘통속성’은 대중의 저급한 취향을 뜻하는 말로서 부정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2A01040276).

** 연세대학교 사학과 강사, 연세대학교 매체와예술연구소 전문연구원

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20세기 초 평등의 관념이 한국사회에 들어오면서 대중 누구나 계몽과 각성을 통해 높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는 문화평등주의가 대두하였는데, 당시 ‘통속교육’의 활성화는 이러한 시대 분위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평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처음엔 결과의 평등이 중시되었지만 점차 과정의 평등 쪽으로 강조점이 옮겨갔다. 일상개념으로서의 ‘통속’이 대중의 성장을 전제로 결과의 평등을 중시하는 평등주의 감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문화예술 개념으로서의 ‘통속’은 지식인과 대중 사이의 위계를 전제로 기회 균등이라는 과정의 평등을 중시하는 평등주의 감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남한은 후자를, 북한은 전자를 선택함으로써 남북은 두 개의 평등주의에 기반한 두 개의 ‘통속성’을 갖게 되었다.

주제어 : 개념사, 개념의 분단사, 감성의 분단사, 감성, 분단, 통속, 통속성, 대중, 대중성, 인민, 인민성, 대중문화, 평등, 평등주의, 문화평등주의, 문화 위계

I. 머리말: 개념과 감성

이 글은 식민지시기부터 해방후를 거쳐 1990년대에 이르는 시간 동안 문화예술 및 교양오락 분야에서 끊임없이 언급되었던 개념 중 하나인 ‘통속’과 ‘통속성’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 분화 과정을 ‘감성의 분단사’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북의 분단은 단지 국토의 분단, 체제의 분단일 뿐만 아니라 개념의 분단, 나아가 감성의 분단이라 할 수 있다. 분단의 세월이 초래한 남북 문화의 이질화는 무엇보다 언어에서 먼저 체감할 수 있다. 단지 사용하는 용어뿐만 아니라 용어의 어감과 그 용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맥락과 분위기의 차이는 감성의 분단을 표상한다. 이 글이 다루고 있는 ‘통속’과 ‘통속성’은 남북한에서 다르게 쓰고 있는 용어 가운데 그 의미의 차이가 가장 큰 개념 중 하나이다.

남한의 『표준국어대사전』은 ‘통속’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의한다. 하나는 “세상에 널리 통하는 일반적인 풍속”이라는 뜻이며, 다른 하나는 “비전문적이고 대체로 저속하며 일반 대중에게 쉽게 통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다.¹⁾ 곧 ‘통속’은 일반적이고 공통적이며 비전문적이라는 의미와, 대중의 기호에 영합하는 저급한 것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남한에서 ‘통속’, 혹은 ‘통속적’이라는 말은 주로 후자의 의미에서 부정적인 용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어떤 예술작품이 ‘통속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전문적이거나 고급한 것의 반대말을 뜻하며, 따라서 그 예술작품은 그다지 예술적이지 못하다는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비판적이거나 모욕적인 함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곤 한다.

반면, 북한에서의 ‘통속’, ‘통속성’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북한 『문학대사전』의 ‘통속성’ 항목에는 “광범한 대중의 수준과 요구에 맞으며 그들이 알기 쉽게 씌어진 문학작품의 특성”이자, “참다운 인민적인 문학예술의 본질적 특성의 하나”라고 서술되어 있다.²⁾ 곧 ‘통속’이란 대중들이 알기 쉽고 받아들이기 쉬운 것임과 동시에 ‘참다운 인민적 문학예술’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특성이다. 이처럼 북한에서 ‘통속성’은 문학예술의 인민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징표로서 그 내용과 형식, 표현이 인민대중의 사상감정과 취미에 맞고 이해하기 쉬우므로 인민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1)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2019.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2) 『문학대사전 4』, 사회과학원, 2000, 185면.

인민을 교양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특성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어떤 문학이나 예술이 ‘통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민들이 즐기고 좋아하는 바람직한 예술로 칭송받는 것이 된다.

‘통속’을 둘러싼 이같은 남북의 극명한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단지 차이가 있거나 대립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쪽에서는 거의 비난이나 비하의 뜻으로 쓰이는 말이 다른 한 쪽에서는 상찬의 뜻으로 통한다는 것은 개념의 분단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그것은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뿐만 아니라 대중과 인민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도 기인한다. 이 글은 그 차이가 근본적으로 개념을 둘러싼 감수성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사실상, 개념(idea/concept)에는 순전히 이성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감성적인 측면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 사회에서 특정 개념이 만들어지고 변천하는 과정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의내리기’의 과정이 아니라 여러 정의와 담론들의 경쟁과 쟁투,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경험과 기대 사이의 긴장관계,³⁾ 현실과 이상에 대한 시각과 프레임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하고 미세한 느낌이나 감성, 정서 등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 글은 개념을 생각과 정서가 결합된 사회적 감성의 표상으로 바라보고, 개념의 변화에는 그러한 개념의 변화를 추동시킨 감수성의 변화가 수반되어 있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통속’ 개념이 남북에서 정반대의 가치 지향을 가진 의미로 쓰이게 되는 역사적 과정을 추적하는 것은 개념의 분단사이면서 동시에 감성의 분단사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개념사 연구가 시작된 배경에는 한국의 근대성을 검토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이는 한국 근대 지성사 연구의 획기적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연구의 대상 범위를 주로 한말~1950년대 정도로 국한시켰다.⁴⁾ 개념사가 북한과 분단

3) 라인하르트 코젤렉은 개념이 경험공간과 기대지평 사이의 간극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나인호, 『개념사란 무엇인가』, 역사비평사, 2011, 79~80면.

4) 한국에서 개념사는 몇 권의 번역서와 해설서가 출판되면서 시작되었다. 개념사의 이론서로서 라인하르트 코젤렉의 『지나간 미래』(1998)와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20』(2010~2019), 리디아 리우의 『언어횡단적 실천 : 문학, 민족문화 그리고 번역된 근대성-중국, 1900~1937』(2005), 코젤렉의 개념사를 본격적으로 소개한 나인호의 『개념사란 무엇인가?』(2011)는 한국 개념사 연구에 길잡이 역할을 하였다. 본격적인 한국 개념사 연구의 시작을 알린 것은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의 『근대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2005), 『근대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 지평의 확대』(2006), 『근대계몽기 지식의 굴절과 현실적 심화』(2007) 시리즈로서, 근대계몽기의 대표적인 인쇄매체에

의 문제를 시야에 넣기 시작한 것은 북한대학원대학교가 편찬한 『한(조선)반도 개념의 분단사 : 문학예술편 1~3』(2018) 시리즈부터이다. 총 8권으로 기획된 이 연구는 개념어를 문학예술 분야로 확장시켰다는 점과 대상 시기를 해방 이후 현대까지로 넓힘으로써 그간 개념사 연구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던 북한을 시야에 넣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한국 현대사를 개념의 분단사로 바라봄으로써 남북 통합적인 역사 쓰기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글은 이러한 ‘개념의 분단사’에 ‘감성’의 문제를 더하고자 한다. 한국 근현대사 연구에서 ‘감성’이라는 문제의식이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⁵⁾ 하지만 감성의 문제는 분과학문을 넘어선 융합학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종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감성의 역사성을 파악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학문 의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통속’ 개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문화평등주의’를 일종의 시대 정신이자 당대의 사회적 감수성으로 이해한다. 곧 ‘통속’ 개념의 변화 및 분화의 저변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미묘한 감성의 차이와 변주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이 글의 분석 대상인 ‘통속’과 ‘통속성’에 대해서

나타난 근대 개념을 추적하였다. 한국사학계에서 사용하는 주요 역사용어들의 변천과 용법을 비교 검토한 〈역사용어바로쓰기〉(2006)는 개념과 역사인식의 문제를 정면으로 파헤쳤다. 2008~2014년에 나온 30권짜리 Vita Activa 개념사 시리즈는 근대의 기본관념과 제도, 사건, 쟁점에 걸친 방대한 개념들을 정리하여 한국의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개념사를 현실과의 쟁투의 역사로 규정하고 한국이 서구의 근대 개념을 수용하는 과정을 분석한 『근대 한국의 사회과학 개념형성사 1,2』(2009, 2012)는 사회과학적 시각에서의 개념사를 제시한 반면, 2009~2011년에 발간된 개념어총서 WHAT 시리즈는 인문학적 시각에서 여러 주제들을 선정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주로 사회과학적인 개념어에 국한되어 있었던 그간의 개념사에 반해 청년, 병 등 근대 일상개념어에 주목한 『일상개념총서 1~2』(2013~2014)는 개념사를 넘어서 문화사 연구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신선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개념사 연구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는 한림과학원의 『한국개념사 총서 1~13』(2008~2020)이다. 이 총서는 서구의 근대 개념이 동아시아 각 사회에서 번역, 수용되는 과정을 언어와 사상과 철학, 곧 사유방식 자체의 변혁 과정으로 파악한 연구로서, 개념사를 넘어서 정치사, 사상사, 철학사 등에 적지 않은 학문적 자극을 주었다.

- 5) 여기서 감성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감성으로서 한국 학계에서는 감수성, 정동, 정서, 심성, 마음 등등과 광범위하게 통용된다.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의 감성연구,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의 감성과공공성 연구,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의 情動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의 마음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2010년대에 들어 감성은 문학과 철학, 사회학, 정치학, 문화학 등의 분야에서, 그리고 학제간 연구의 일환으로 관심 테마로 자리잡았으나, 역사학 분야에서는 아직 첫걸음을 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는 주로 미학과 문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져왔는데,⁶⁾ ‘통속’은 비단 문학과 예술 분야에만 국한되는 용어가 아니라 교양, 오락, 심성 등 20세기 문화 전반을 가로지르는 사회문화사의 중요한 키워드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개념사의 관점에서 ‘통속’ 개념의 변천을 추적한 연구는 강용훈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⁷⁾ 그나마 연구의 범위가 한말에서 1950년대까지의 남한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시야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통속’이라는 용어 자체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바탕에 내재한 시대의 정서까지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 글은 ‘통속’이라는 특정 개념이 등장한 시대의 정신과 감성이 결국 ‘통속’ 개념을 변화시킨 추동력이라는 전제 하에, 그 변천과 분단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한반도 분단이 가지는 의미를 ‘감성의 분단’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II. 문화평등주의의 대두와 ‘통속교육’

한국에서 ‘통속’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대략 1900년대 이후부터이다. 그러나 ‘俗’과 관련되어서는 그 이전에도 다양한 용어들이 쓰였다. 世俗, 風俗, 習俗, 時俗, 凡俗, 俗人, 低俗, 俗流 등이 그것으로, 크게 생활문화를 나타내는 말, 일반적, 혹은 보통이나 평범을 의미하는 말, 저급한 것을 지칭하는 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⁸⁾ 이밖에도 종교나 영적인 세계와 대립되는 俗世와, 속세의 습성인 世俗性 등을 지칭하는 말로도 쓰였다. 이는 ‘俗’이라는 말이 특권적 계급이나 고차원적이고 영적인 것과 반대되는 보통의 인간생활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俗’이 근대 이전부터 존재했던 용어라면 ‘通’은 근대에 들어 주로 ‘보통’, ‘통속’ 등의 용례로 쓰이기 시작했다. 이때 ‘通’은 의사소통하다(communicate), 통용하다(common use)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근대적 개념으로서의 ‘통속’은 영적인 세계나 특권

6) 박성봉, 『대중예술의 미학-대중예술의 통속성에 대한 미학적인 접근』, 동연, 1995; 한기형, 「노블과 식민지-염상섭 소설의 ‘통속’과 ‘반통속’」, 『대동문화연구』 82, 2013.

7) 강용훈, 「통속 개념의 변천 양상에 대한 역사적 고찰」, 『대동문화연구』 85, 2014.

8) 이경구, 「18세기 ‘時’와 ‘俗’ 관련 용어의 변화와 그 의미」, 『한국실학연구』 15, 한국실학학회, 2008, 74면.

층이 아닌 보통의 인간 생활과 통하는 그 무엇을 의미한다.⁹⁾ 또한 ‘통속’을 동사로 읽으면 ‘俗과 통하게 한다는 뜻으로 俗이 아닌 세계를 俗과 접촉시켜 상호 소통하게 한다는 뜻이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일본과 중국에서 ‘통속’이라는 개념은 근대 계몽 운동의 중요한 장치라 할 수 있는 언어와 문자가 대중들에게 쉽게 통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었다.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신문의 문장이 ‘통속문’에 근거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일본 근대 국어의 성립에 기여했으며, 중국의 문체 개혁 운동인 백화문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신청년』 그룹은 속어체를 ‘통속적 사회문학’의 핵심요소라고 하였다.¹⁰⁾ 특히 메이지시기 일본에서 ‘통속’이라는 말은 근대적 지식의 대중적 보급을 위한 계몽의 기획으로서 강연, 출판 활동 등과 더불어 활발하게 쓰였다. 한국에서도 ‘통속’이란 말은 주로 ‘교육’이나 ‘강연’ 등과 결합하여 ‘통속교육’, ‘통속강연’, ‘통속강좌’, ‘통속강화’ 등의 용례로 쓰였다.¹¹⁾ 이때 ‘통속 교육’이란 일본이나 중국에서의 용례와 마찬가지로 대중들에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통속’이라는 말이 ‘교육’과 결합하여 쓰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당대의 정신사에서 커다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전근대의 신분사회에서 교육이란 신분 질서를 유지하고 공고화하기 위해 지배계급 안에서 행해지는 지식의 세습에 불과했다. 대체 왜 지배층이 아닌 피지배층 사람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단 말인가? 전근대에 피지배층=보통 사람들에 대한 교육(엄밀한 의미에서 교육이 아닌 훈육)은 지배층의 지시를 알아듣고 그대로 따를 수 있는, 딱 그 정도면 되는 것이었다. ‘교육’이란 개념 자체가 근대적인 이상을 반영한 용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통속교육’은 교육 대상의 각성과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용어였다.

말하자면 ‘통속’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정치 주체의 등장을 바라보는 지식인의 관점이 투영된 것으로, 이 용어의 광범위한 사용은 ‘평등’ 관념의 확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곧 제도로서의 신분질서가 무너지면서 지식층에서도 세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통사람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고, 세계 정세의 변화와 사상적 동향에

9) ‘통속’의 어원과 초기 용례에 대해서는 강용훈, 앞의 글, 11~13면 참조.

10) 강용훈, 앞의 글, 16면.

11) 심의성, 「論 我교육계의 시급방침」, 『대한자강회월보』 5, 1906.11.

주목하면서 근대적 국민국가 형성을 위한 새로운 정치 주체의 모색은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전제로 하는 것임을 자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평등’의 관념은 ‘자유’와 함께 조선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신세계’의 사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¹²⁾ 신분 고하와 남녀 구별,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할 수 있다는 것은 근대의 이상이 주는 가장 큰 매혹이었다.

물론 전근대에도 평등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불교에서는 이미 카스트제도의 불평등과 곤경을 벗어나기 위한 부처의 해법으로서 ‘평등’이라는 용어를 썼으며,¹³⁾ 조선후기의 실학자들도 평등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¹⁴⁾ 여기서 ‘평등성’이란 전근대의 사상체계에서 인간 존중과 차별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하는 관념을 총칭하는 말로서 근대적 평등 개념과 접지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완전히 근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중국학계에서는 춘추전국시대 諸子百家의 儒家, 道家, 墨家, 法家, 佛家 등에 이미 평등성이 내재해 있다고 주장하지만, 불가를 제외하면 ‘평등’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근대적 관념 형성 이전에 싹튼 평등성 추구의 단계라고 보인다.¹⁵⁾ 마찬가지로 실학자들의 평등성에 대한 관념은 전통적인 유교식 신분질서 관념에 균열을 초래한 점은 있지만 그것이 기존의 신분질서를 완전히 부정하는 데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었다. 조금 더 근대적인 평등 관념과 가까운 것은 서학 및 그 영향을 받은 동학에서의 人乃天 사상으로, 근대 초기에 평등의 관념이 한국사회에 널리 확산되는 데에는 동학에 뿌리를 둔 천도교 등의 사상이 기여한 바 있다.¹⁶⁾ 개화기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이나 이들이 설립한 학교에서 행해진 민주주의 교육도 평등 관념의 확산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한, 한국에서 평등 관념의 급속한 확산은 일본을 시작으로 서구 열강과 조약을

12) 정재관, 「국민의 계급을 타파, 자유평등을 주장할 일」, 『공립신보』, 1907년 11월 1일자.

13) 김승동 편, 『불교·인도사상사전』, 부산대 출판부, 2001, 2189면.

14) 김남희, 「흠흠신서와 평등권에 대한 담론」, 『법학논총』 30, 법학연구소, 2013; 정종원, 「반계 유형원의 평등사상과 도덕국가체제론」, 『민족문화연구』 75, 2017.

15) 邱偉雲, 『中國近代平等觀念的形成(1895-1915)』,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2015, 24면.

16) 이상임, 「동학·천도교에 있어서 남녀 평등의 문제-여성 교령의 채택 가능성에 대한 논의」, 『동학학보』 52, 동학학회, 2019.

맺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실제로는 불평등한 것임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른바 강화도조약에 “조선과 일본이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결코 그것이 평등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세계가 평등을 시대정신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자각이 시작된 것이다. 개화파의 정치적 강령이기도 했던 평등 사상은 개화기 신문들을 통해 종래의 ‘均平’이나 ‘同等’에서 근대적 의미의 ‘평등’으로 전환되어 갔다.¹⁷⁾ 무엇보다 이러한 전환에는 자유, 평등, 박애라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과 이에 영향 받은 유럽의 정치운동, 미국 독립운동의 의의 등 구미의 신사조에 대한 소개가 큰 역할을 했다.¹⁸⁾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대한 소개라든가 자유와 평등의 중요성에 대한 설파가 이어지면서¹⁹⁾ 평등은 단지 인간은 본래 평등하다는 선언적 차원을 넘어서 인간은 누구나 평등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실천적 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²⁰⁾ 신채호는 ‘신국민’이라는 개념을 주창하면서 그 기본 전제로서 자유와 함께 평등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평등주의가 행해진 나라는 반드시 흥하고 불평등주의가 행해진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고 하면서 지금 한국의 최대 원수는 불평등주의로서 “동포들은 계급주의를 한 칼로 잘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¹⁾

1910년대 세계대전의 종전과 러시아혁명의 기운 속에 진행된 세계 개조라는 신사상 조류의 유입, 3.1운동으로 고조된 민족주의와 그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일제의 ‘문화정치’, 그것이 허용한 공간에 만들어진 조선인 언론의 존재 등의 제반 조건들 속에서 1920년대의 평등 논의가 시작되었다.²²⁾ 당시의 평등 논의는 크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제적 평등에 대한 논의와 국내의 사회적 평등에 대한 논의로 나누어지는데, 후자는 다시 인격의 貴賤에 대한 평등 곧 정치적 평등과, 貧富에 대한 평등 곧 경제적 평등으로 나뉘어진다. 전자는 형평운동 같은 신분해방운동이나 남녀평등과 같은 인권운동의 사상적 기반이었고,²³⁾ 후자는 사회주의 운동과 같은 혁명운동의

17) 정종원, 「개항기 한글 신문의 평등 개념 연구-독립신문과 제국신문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129, 한국사학회, 2018.

18) 「各國近事」, 『漢城旬報』, 1884년 1월 18일자; 「美國誌略續稿」, 『漢城旬報』, 1884년 3월 8일자.

19) 정재관, 「국민의 계급을 타파, 자유평등을 주장할 일」, 『공립신보』, 1907년 11월 1일자.

20) 「국민의 평등 권리」, 『황성신문』, 1900년 1월 19일자.

21) 신채호, 「20세기 신국민」, 『대한매일신보』, 1910년 2월 25일자.

22) 동아일보의 창간사에도 신문이 지지하는 민주주의의 원리 중 하나로서 평등주의가 명시되어 있다. 「주지를 선포하노라」, 『동아일보』, 1920년 4월 1일자.

기반이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국가간 불평등이나 계급적 차별, 남녀의 차별 등을 제거하기 위한 의식의 성장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공통된 견해였으며, 이때 반드시 필요한 조건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교육이었다.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교육이고, 그 목적은 (선진국, 혹은 지배층) 동등한 수준의 문화의 달성과 향유라는 것, 이것이 바로 문화평등주의이다.²⁴⁾ 사실 문화평등주의는 갑오개혁의 신분제 폐지, 한문 기반의 과거제 철폐, 학교 설립과 새로운 인재 등용 등에 이미 그 정신이 내재되어 있었으며, 이후 근대적 초등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소학교령’의 공포와 국문으로 된 독립신문의 간행은 이를 더욱 진전시켰다. 여기에 1920년대 한글 민간언론의 성립과 영화와 음반 등 대중매체의 확산 등으로 인한 지식과 문화의 자본주의적 상품화는 문화평등주의를 결정적으로 가시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문화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가 바로 ‘통속교육’이고 그 구체적인 형태가 ‘통속강연’이었다. ‘통속교육’은 보통학교나 서당 취학률이 10%도 안되는 현실에서 제도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조선인들에게 근대적 문명 생활에 대한 지식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조선인들에게 근대적 교양을 전파하고 구래의 나쁜 습관이나 관습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통속강연회가 개최되었다.²⁵⁾ 여기서 ‘통속’은 보통의 조선인들에 대한, 혹은 보통의 조선인들이 알아야 할 공통의 상식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통속교육’은 조선인 사회에서만 운위된 것이 아니라 일제 식민당국 역시 통치의 방편으로 삼은 것이었다. 근대 문명에 대한 상식과 소양을 갖춘 대중이 현실의 불평등에 눈을 뜨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평등의 권리를 찾아나갈 수 있다는 문화평등주의의 이상은, 민중의 각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족운동이나 계급운동으로 발현될 수도 있지만 식민지 대중을 통치에 용이하도록 개량하고자 하는 식민 당국의 의도에 따라 교육받은 피식민자 양성에 그칠 수도 있었던 이중적인 것이었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것은 일제 당국이 한편으로는 동화주의적 식민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편으로 평등을 내세우면서도,²⁶⁾ 다른 한편으로는 “무질서한 자유사상

23) 박인덕, 「현대 조선과 남녀평등 문제」, 『동아일보』, 1920년 4월 2일자.

24) 安部磯雄, 「문화적 평등주의」, 『동아일보』, 1920년 4월 1일자; 백두산인, 「문화주의와 인격상 평등」, 『개벽』, 1920.12.

25) 김기전, 「농촌 개선에 관한 도안」, 『개벽』, 6, 1920.12.

26) 「日鮮人 평등 대우 - 靑木 서무부장 談. 상·하」, 『매일신보』, 1920년 6월 9~10일자.

을 창도하고 방중한 평등주의를 구가하면서 문화운동의 가면 아래 독립운동을 선동하고 민심을 동요케 한다”면서 평등주의를 강력히 비난하였다는 점이다.²⁷⁾ 이처럼 일본인과 조선인이 평등하다는 것은 구호에 불과한 기만적인 것이었지만 어쨌든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조선인 지식인들의 생각과 표면적으로나마 맞아떨어져 양자가 모두 ‘통속교육’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았다.²⁸⁾ 각각 양자의 생각을 대변했던 『매일신보』와 『동아일보』에는 ‘통속교육’, ‘통속강연’을 주제로 한 기사가 자주 실렸다.²⁹⁾ 위생통속강연, 통속의학강연, 연기교육통속강연 등 특정 주제로 열리는 통속강연과 지역 단위에서 주최한 통속강연, 유명인사를 내세운 통속강연 등 다양한 종류의 통속강연이 전국 각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는 때때로 활동사진대회와도 결합하여 지역민들에게 종합적 교양과 문화체험을 안겨주는 중요한 행사가 되기도 했다.³⁰⁾ 또한 당시 『공제』, 『신민』, 『동명』, 『조선농민』 같은 잡지에는 ‘통속강화’라는 이름의 다양한 연재물이 실려 근대의 신문명을 대중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 노동문제통속강화, 역사통속강화, 통속위생강좌, 문예통속강화 등이 그것으로, 근대의 문명인이라면 알아야 할 상식들을 알기 쉽게 설명한 글이었다.³¹⁾

교육을 중시하는 문화평등주의의 견지에서 보자면 일제 당국의 각종 정책을 식민지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것이 ‘통속교육’이었으며, 조선사회의 지식인들이 대중을 각성시키기 위한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추구했던 것도 ‘통속교육’이었다. 학교를 증설하여 더 많은 조선인들을 학교 교육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지만,³²⁾ 학교 교육의 혜택을 입지 못하더라도 계몽의 대상으로 적극 끌어들여야 한다는 생각은 식민 당국이나 조선의 지식인들이나 마찬가지였다. ‘문화정치’나 ‘문화적 민

27) 「정무총감 훈시」, 『동아일보』, 1920년 9월 3일자.

28) 「평등의 원리, 실력양성」, 『동아일보』, 1920년 6월 26일자.

29) 「통속교육강화」, 『매일신보』, 1915년 3월 12일자; 「청년연합 통속강연」, 『동아일보』, 1921년 4월 25일자.

30) 이하나, 「일제하 활동사진/영화대회를 통해 본 식민지 대중의 문화체험과 감성공동체」, 『한국문화』, 2018, 158면.

31) 강용훈, 앞의 글, 188면.

32) 「조선 교육에 대하여 1~4」, 『동아일보』, 1920년 4월 20~23일자; 「보통학교는 무엇하는 것이냐」, 『동아일보』, 1920년 7월 14일자.

족주의'가 모두 정치적 평등의 실현 불가능성을 문화로 대체한 전략의 언어였음을 상기할 때, 평등 이념을 어느 정도 현실화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인 문화평등주의를 기반으로 한 '통속교육'은 식민당국과 식민지 지식인 양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일종의 만능 열쇠였다. '통속교육'이라는 용어를 둘러싼 일제와 조선인 사회의 동상이몽은 문화평등주의라는 시대 정신 속에서 공존하고 경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의 평등 관념, 특히 교육을 강조한 당시의 문화평등주의에는 서로 결이 다른 두가지 정서가 결합되어 있었다. 하나는 교육의 결과이자 목표로서의 평등을 강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정의 평등, 곧 교육의 기회 균등을 강조하는 것이다. 전자는 인간은 본래 평등하기 때문에 현실의 불평등을 타파하고 평등을 쟁취해야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과 재능의 차이로부터 오는 불평등과 차별은 면할 수 없으니, 절대적 평등이 아닌 합리적 평등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의 의미에서의 평등, 곧 결과적 절대적 평등론은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면서 경제적 평등을 중시한 계급해방의 기치 아래 강조되었다.³³⁾ 반면 후자는 “효과의 불평등은 있을지라도 기회 균등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절대적 평등은 결코 실현될 수 없기에 …… 우열과 차별을 없애려는 평등을 요구하기 보다는 사람에게는 원래 우열과 계급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데모크라시의 평등 요구”라는 말 속에 집약되어 있다.³⁴⁾ 이는 결과적 평등을 부정하고 과정상의 공정성과 능력을 중시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능력주의 및 공정 담론과 매우 유사하다.³⁵⁾ 이러한 능력주의는 신분에 의한 세습으로 생긴 불평등은 타파해야 하지만 능력에 따라 생기는 차별과 불평등은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서,³⁶⁾ 평등을 이상으로 하는 현대 사회에

33) 「경제적 절대 평등, 대중 본위의 지식계발」, 『조선일보』, 1926년 4월 17일자.

34) 「평등요구의 운동과 정신을 논함 상·하」, 『조선일보』, 1921년 8월 4~5일자.

35) 사회 감정으로서의 평등주의와 한국 평등주의의 모순성을 지적한 사회학적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송호근, 『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 삼성경제연구소, 2006; 김인수, 「역사적 평등주의 또는 평등주의의 종말?」,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논문집』, 2017; 정태석, 『한국인의 에너지, 평등주의-평등주의와 서열주의의 모순적 공존』, 피어나, 2020.

36) 일제는 교육에 있어서 민족차별을 철폐한다고 공언했지만 이는的空言에 불과했는데, 이때마다 내세운 것은 “조선인은 교육에 대한 성의가 없다”, 곧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구동성으로 교육차별을 통론」, 『동아일보』, 1926년 1월 9일자. 식민지시기 민족차별 교육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민족 구별 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형식적인 교육 기회 균등 논리가 현실적인 차별로 귀결되는 식민지교육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연태, 『식민지 민족차별의 일상사-중등학교 입학부

서 왜 서열과 위계가 아직도 없어지지 않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감성은 인간의 본성이어서 만인이 평등하지만, 건강과 능력은 타고날 때부터 차이가 있어 평등하지 않다”는 주장³⁷⁾ 속에 당시의 평등 관념 안에 이미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 상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 두가지 다른 결의 평등에 대한 감수성은 이후 평등주의의 중층성을 형성하며 향후 남북의 서로 다른 평등주의가 출발하게 되는 기원이 된다.

요컨대, ‘통속교육’이라는 용어에는 애초의 문화평등주의에서 보이는 평등의 이상과 위계적 현실 사이의 괴리가 잘 드러난다. ‘통속교육’에서 교육의 주체는 지배층이자 지식인이고 교육의 대상은 피지배층이자 일반 대중이다. ‘통속’은 기본적으로 통속적이지 않은 세계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시대를 먼저 안 사람들(非통속의 세계)이 늦게 아는 사람들(통속의 세계)을 선도하고 계몽해야 한다는 생각은 ‘통속교육’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었으며, ‘통속’이라는 용어 자체에 내재된 위계성의 본질이었다.

Ⅲ. ‘통속’의 분화와 ‘통속성’의 내용

‘통속교육’이나 ‘통속강연’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1910~1920년대의 지식인들은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문화운동을 진행하였는데, 이때 신문이나 잡지 등에 기고한 문장은 ‘통속문’을 지향하였다. ‘통속문’이란 한문체나 문어체가 아닌 평범한 조선사람들에게 널리 통용될 수 있는 문체로 쓰여진 문장을 의미했으며, 이러한 문체로 쓰여진 소설이나 문학을 ‘통속소설’, ‘통속문학’이라고 불렀다. 이는 보통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나 문학이라는 뜻이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통속’을 지향하는 것은 대중들에게 교양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되었다.³⁸⁾ 같은 맥락에서 과학과 예술을 ‘통속화’하는 것은 대중 공통의 상식을 확장함으로써 보편적이면서 민중적인 지식을 구축하려는 것이었다. ‘통속강연’에서 사용되는 ‘통속적’ 화법이란 보다 많은

터 취업 이후까지』, 푸른역사, 2021.

37) 「평등 - 현대사조의 일관념 1~3」, 『조선일보』, 1921년 8월 26~28일자.

38) 「현당극담 59」, 『조선일보』, 1921년 3월 28일자.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법을 말하고, ‘통속적’ 문장이란 만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평이하게 쓰여진 문장을 가리키는 말이었다.³⁹⁾ ‘통속’을 저급한 것이나 예술과 대립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1910년대까지는 극히 일부 문인에 한정된 것이었다.⁴⁰⁾

그런데 1920년대 ‘통속’이 소설이나 문학과 결합하여 문화예술 부문에서 쓰일 때 그 의미는 ‘통속강연’에서의 의미와는 사뭇 다른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다. 곧 ‘통속’이 일상개념에서 미학적 개념으로 확장된 것이다. ‘통속소설’, ‘통속문학’은 ‘대중소설’, ‘대중문학’, ‘대중문예’ 등과 함께 통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대중소설’, ‘대중문학’보다 하위에 위치해 있는 소설/문학을 뜻하기도 했다. ‘통속소설’은 있어도 ‘통속시’나 ‘통속희곡’은 없는 것처럼 ‘통속문학’은 사실상 ‘통속소설’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는 소설과 ‘통속성’의 밀접한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다. ‘통속성’을 소설에 필수적인 특성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가 당시 ‘통속’에 대한 관념과 정서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속성인 ‘통속성’이 구매력을 갖춘 소비 대중들의 선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 곧 ‘상업성’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근대 문화의 자본주의적 상품화 속에서 잘 팔리는 상품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통속성’의 증거가 된 것이다. 따라서 상업적 대중매체의 하나인 신문에 연재되는 소설이나, 방각본 소설 이래 서민들의 폭발적 인기를 끈 딱지본 소설 등 상업출판물에 대한 인식은 ‘통속성’에 대한 가치 평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1924년 「만세전」을 시작으로 신문에 중편 및 장편소설을 연재한 염상섭은 1920년대 중반까지는 “저급의 교양을 가진 대다수 민중을 표준으로 삼아 작품을 통속화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나,⁴¹⁾ 불과 몇 년 후의 글에서는 이와 다른 태도를 취한다. 그는 당시 소설을 세 개의 경향, 곧 통속소설=대중문예, 무산파 작가들의 투쟁선전작품, 부르조아적인 고급작품으로 분류하였다. 그는 문학의 중심이 시에서 소설로 전환된 것은 데모크라시 정신의 소산이며 문예의 민중화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통속소설=대중문예는 계급의식이나 인습도덕에 반항하고 평등사상을 고취시킨 것이라고 하였다. 소설이 근대에 탄생한 서민의 양식이고 보면 소설이라는 양식 자체가 대중성과 통속

39) 강용훈, 앞의 글, 20면.

40) 김동인, 「소설에 대한 조선 사람의 사상을」, 『학지광』 18, 1919.8.

41) 염상섭, 「계급문학시비론」, 『개벽』 56, 1925.2.

성을 이미 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소설을 ‘고급적’이라고 하거나 ‘대중적’이라고 구분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였다.⁴²⁾ 당시엔 단편소설이 장편소설보다 더 예술적인 양식으로 이해되고 있었고, 장편소설인 신문연재소설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곤 했다.⁴³⁾ 하지만 염상섭은 신문 연재소설을 계속 써 나가는 가운데 스스로의 소설을 ‘통속소설’로 규정함으로써 ‘통속성’을 옹호했다.⁴⁴⁾

한편, 카프 문인 김기진은 소설을 예술소설, 통속소설, 대중소설로 분류하였다. 예술소설은 ‘예술의 상아탑 속에서’ 만들어져 문인 자신과 소수의 문학청년들에게만 읽히는 문학이고, 통속소설은 신문이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삽화와 함께 게재한 소설이며, 보통의 사람들, 특히 부녀자나 남녀학생들이 독자가 되는 소설이라고 정의하였다.⁴⁵⁾ 반면 종래의 대중소설은 춘향전, 심청전, 구운몽 같은 “울긋불긋한 표지에 4호 활자로 인쇄된 이야기책”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새로운 대중소설은 노동자 농민을 각성시키고 현실에서 구제하기 위한 소설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⁴⁶⁾ 이러한 구분에 의하면 ‘통속소설’은 부녀자와 남녀학생들이 주로 읽는 것으로 보다 많은 독자들에게 감응을 줄 수 있는 소설이지만,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무산)대중을 위한 소설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염상섭과 김기진의 논의에서 ‘통속소설’이 부르조아를 위한 ‘예술소설’이나 무산대중을 위한 ‘대중소설’과는 다르다는 것이 지적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통속소설’의 의의가 부정되거나 무시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통속성’이란 보통사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성질로서 소설가들이 반드시 선취해야 할 어떤 것이었다.

그런데, 1930년대 중후반 무렵부터 ‘통속소설’이나 ‘통속성’은 현저하게 비난의 의미로 쓰여지기 시작했다. 이는 1930년대 초반, 신문의 고질적인 경영난을 일본 상품 광고의 유치로 타개하고자 하는 언론의 상업화와도 관련이 있었다.⁴⁷⁾ 신문사들의 광고 유치 경쟁은 신문 판매 부수가 판가름했고, 구독자수에서 신문 연재소설의

42) 염상섭, 「소설과 민중-조선과 문예/문예와 민중 續論 4」, 『동아일보』, 1928년 5월 31일자.

43) 하영만, 「염상섭씨에게-단편을 발표하라!」, 『조선중앙일보』, 1934년 7월 24일자.

44) 한기형, 앞의 글, 186면.

45) 팔봉, 「통속소설 소고 상·중·하-문예시대관단편 1~3」, 『조선일보』, 1928년 11월 9~11일자.

46) 팔봉, 「대중소설론 1~7」, 『동아일보』, 1929년 4월 14~20일자.

47) 장신, 「1930년대 언론의 상업화와 조선동아일보의 선택」, 『역사비평』, 2005.2, 170~174면.

영향력은 매우 큰 것이었다. ‘통속성’이 부정적 의미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신문소설=상업적 소설=통속소설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통속성’의 대립항으로 ‘순수성’이 상정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문학을 ‘순수’와 ‘통속’으로 나누고 전자는 참문학의 길이고, 후자는 대중에게 영합한 것일 뿐이라는 식의 발상의 기원에는 일본문학계의 영향도 있었다. 1930년대 일본 문단에서는 기쿠지 칸(菊池寛) 류의 대중통속소설과 NAPF(전일본무산자예술동맹)가 주도하는 정치소설에 대항하여 나온 요코미즈 리이치(横光利一),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같은 작가들의 감각적이고 사변적인 소설을 예술소설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조선 평단의 ‘순수’, ‘통속’ 개념도 이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⁴⁸⁾ 평론가 김환태는 ‘순수소설’은 “스토리가 심적 필연성을 띠어 우리의 진정한 감정과 통하여 느끼게 하고 이해하게 하는” 소설인데 반해, ‘통속소설’은 “스토리가 아무런 심적 필연성을 가지지 못하고 다만 우리의 병적 감상에 호소하여 우리의 흥미를 자아내는” 소설이라고 하였다.⁴⁹⁾ 한때 카프의 일원이었던 엄홍섭은 신문연재 장편소설=통속소설, (문예)잡지계재 단편소설=예술소설이라는 등식 속에 ‘통속소설’이란 일반적으로 대중의 저속한 흥미와 오락적 호기심을 조장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⁵⁰⁾ “문학의 통속화는 대중에 영합하기 위한 자기 모독”이지만 “문학의 대중화는 그 범위가 넓어 작가의 역량이 드러난다”고 하는 주장 역시 ‘통속성’과 ‘대중성’을 명백히 구분하면서 전자를 비판한 것이다.⁵¹⁾

물론 당시에도 ‘통속성’을 소설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했다. 신변소설을 썼던 안희남은 소설을 신변소설과 본격소설/객관소설로 나누고 신변소설의 생활의 진실감과 객관소설의 이야기의 통속성 중 어느 한 쪽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통속성이란 진실성과 대비된다는 생각이 전제가 된 것만은 분명하다.⁵²⁾ 임화 역시 ‘순수소설’, 혹은 ‘예술소설’로부터 ‘통속소설’로의 전환을 문제 삼으며 통속소설이 예술소설의 몰락을 가져올 것을 우려하였다.⁵³⁾ 반면, 한설야는 한 작품 안에 예술성과 통속성이 공존할 수

48) 정창범, 「순수와 통속」, 『세대』 31, 1966, 244~249면.

49) 김환태, 「8월 창작평 : 통속성과 스토리 4」, 『조선일보』, 1936년 8월 9일자.

50) 엄홍섭, 「통속작가에 一言, 특히 신문소설작자에게」, 『동아일보』, 1937년 6월 24일자.

51) 獨角生, 「대중과 통속」, 『조선일보』, 1937년 9월 1일자.

52) 안희남, 「2월 창작평 : 본격소설론 - 진실감과 통속성에 관한 제언 1~5」, 『조선일보』, 1937년 2월 16~20일자.

있음을 지적하고, ‘예술소설’과 ‘통속소설’을 구분하여 후자에 저급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을 비판했다.⁵⁴⁾ 한설야가 해방후 1950년대까지 북한 문화예술계의 중추를 담당했던 것을 상기해 보면, ‘통속성’을 긍정하는 그의 견해와 북한의 ‘통속’ 개념이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가 되면 ‘대중소설’ 역시 ‘통속소설’과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되는데, 이는 1930년대 중반까지 ‘무산대중’, ‘프롤레타리아대중’ 등 피지배계층 일반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던 ‘대중’이 1930년대 후반부터는 계급적 개념이 약화되고 그냥 ‘여러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던 사정과 관련이 있다.⁵⁵⁾ ‘대중소설/문학’과 동의어거나 그 하위로 여겨진 ‘통속소설/문학’은 예술성이 높은 문학, 혹은 순수예술작품의 대립항으로서 자리잡게 되었다.⁵⁶⁾ “통속문학의 대두는 예술문학의 비극”이라든가, “고급한 문예영화를 만들려면 신문소설=통속소설을 영화화할 수는 없다”든가, “대중은 통속 편이니 좋은 통속영화를 만들어 대중을 고급으로 이끌어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모두 문학 안에서의 위계, 문학과 영화 사이의 위계, 영화 안에서의 위계 등을 상정한 말이며, 나아가 독자층 사이에도 문예지에 실린 순수소설을 읽는 고급독자, 곧 중류 이상의 식자층과, 신문에 연재된 ‘통속소설’을 읽는 저급독자, 곧 부녀자와 학생 청소년 사이의 위계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때 ‘통속성’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反예술, 저급, 감상성(센티멘탈리즘), 퇴폐성 등이었다. 김기진은 ‘통속소설’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통속소설’은 독자인 부인, 남녀 학생 등의 ‘보통인’이 사회와 인생에 대해 가지는 전문의 한계를 초월해서는 안되는데 그 범위는 ① 부귀, 공명, 연애와 여기서 생기는 갈등, ② 남녀, 고부, 부자간의 친구 도덕관의 충돌과 이해의 충돌, ③ (현실의) 불합리와 여기서 생기는 비극(예-인신매매) 등이라고 하였다. 또한, 보통인의 감정은 감상적, 퇴폐적이고, 보통인의 사상은 종교적, 배금주의적, 영웅주의적, 인도주의적이며 보통인의 문장 취미는 평이, 간결, 화려한 것이므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통속소설’의 본질이라는 것이다.⁵⁷⁾

53) 임화, 「속문학의 대두와 예술문학의 비극-통속소설론에 대하여 1~6」, 『동아일보』, 1938년 11월 17일자.

54) 한설야, 「통속소설에 대하여 1~5」, 『동아일보』, 1936년 7월 3~8일자.

55) 식민지 지식인들의 ‘대중’ 인식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허수, 「1920~1930년대 식민지 지식인의 ‘대중’ 인식」, 『역사와 현실』 77, 한국역사연구회, 2010, 340~347면.

56) 최재서, 「중편소설에 대하여 그 양과 질적 개념에 관한 試考 5」, 『조선일보』, 1937년 2월 3일자.

이처럼 ‘통속성’ 개념은 점차 두가지 의미로 분화되어 갔다. 하나는 일상개념으로서의 ‘통속’으로서, ‘일반인에게도 널리 통하는’이라는 뜻에서 일반인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혹은 알아야 할 지식, 곧 ‘상식적인 것’을 뜻하였다. ‘상식’은 ‘누구나 모두 다 아는 것’과 ‘으레 그럴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곧 ‘상식’이란 사회적 통념이므로 ‘상식성’과 동의어로서의 ‘통속성’도 사회적 맥락 속에 놓인 개념이었다.⁵⁸⁾ 이러한 의미에서 ‘통속성’은 일상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한다. 다른 하나는 예술개념으로서의 ‘통속’으로서, 당시 대중문화의 주요 특성으로 거론되었던 에로(erotic), 그로(grotesque), 난센스(nonsense) 등과 같이 자본주의 문화의 위기에서 비롯된 부정적 측면으로 거론되었다.⁵⁹⁾ 이에 따르면 ‘통속성’은 근대적 교양을 갖추지 못한 채, 상업적인 문화에 눈길을 빼앗기는 일반 대중의 저속한 문화 취향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물론, 일상개념으로서의 ‘통속’도 지배층이나 지식인과 구분되는 사회의 하위계급으로서의 대중을 계몽의 대상으로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개념으로서의 ‘통속’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 하위계급의 생활세계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이 상대적으로 배제되고 있거나 오히려 긍정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술개념으로서의 ‘통속’과는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통속’이 일상 생활 차원에서 쓰이는 경우와 문예 예술 차원에서 쓰이는 경우에 이처럼 의미의 격차가 생겼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일상과 문예가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과 문예의 분리란 대중과 지식인의 분리를 뜻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전근대적인 신분제적 분리가 아닌 지식과 문화를 기준으로 한 근대적 계급화 과정을 표상하는 것이기도 했다.

말하자면, 문화예술 개념으로서의 ‘통속’이 명백히 대중 내부의 위계, 문화 내부의 위계를 강하게 표상하게 된 데에는 1930년대 조선 공업화와 함께 자본주의가 진전되면서 조선인 사회가 계급화되고 새로운 근대적 지식계급이 생겨나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 이에 발맞춰 당시의 평등 논의는 문화적 평등 보다는 경제적 평등, 과정의 평등 보다는 결과의 평등에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다. “평등 관념은 본래 물건과 물건의 등가교환에서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하면서 평등을 경제적 개념으로 설명하

57) 팔봉, 「통속소설 소고 상-문예시대관단편 2」, 『조선일보』, 1928년 11월 10일자.

58) 이원조, 「상식문학론」, 1939, 강용훈, 앞의 글, 30~32면 재인용.

59) 소래집, 『에로 그로 난센스-근대적 자극의 탄생』, 살림, 2005.

려는 것이나, “土農工商의 계급이 철폐되어 국민 평등이 되었다고는 하나 사실상 부를 방대히 축적하여 국가 권력을 농단하고 있는 계급이 있고 빈곤과 기아에 해매는 다수 국민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진단, 그리고 이와 함께 제시된 “생산과 분배 문제를 합리화하여 소생산자, 소자본가, 서민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자본 대생산자를 견제해야 한다”는 해법 등은 모두 조선인 사회 내부의 계급적 분화를 배경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⁰⁾ 자본주의가 진전될수록 문화의 위계담론이 강해지는 현상은 서구에서도 일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문화에 고급과 저급이 존재한다는 발상은 귀족의 고급문화를 전유한 부르조아들이 이번엔 자신의 문화와 하층민의 문화를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관념이다.⁶¹⁾ 문화평등주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문화 내부의 위계를 강조하는 ‘통속’ 논의는 결과적 평등 지향과 과정의 평등 지향이 결합된 문화평등주의가 점차 전자에서 후자로 경도되면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허약한 경제적 토대 위에 지식 자본만이 유일한 계급적 지표였던 식민지 지식인들은 도달 불가능한 정치적, 경제적 평등 보다는 달성 가능하다고 믿었던 문화적 평등에 몰두했지만, 다시 그 안에 차별과 위계를 심어 놓음으로써 스스로의 모순을 드러냈던 것이다.

IV. 해방후 ‘통속성’ 개념의 분단

일상개념으로서의 ‘통속’과 예술개념으로서의 ‘통속’이라는 의미의 분화는 해방과 분단을 지나 1950년대까지 이어졌다. 당시 국어사전에는 ‘통속’이 전자의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반해,⁶²⁾ 지식인의 담론 세계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통속강연’,⁶³⁾ ‘통속의학강좌’⁶⁴⁾, ‘통속연애강좌’⁶⁵⁾ 등의 용례에서 보이듯이

60) 「생산과 분배의 합리화 1」, 『조선일보』, 1936년 11월 30일자.

61) 허버트 J. 겐스, 강현두 역, 『대중문화와 고급문화: 현대문화의 사회학적 분석』, 1977, 114면.
(Gans, Herbert J., *Popular culture and high culture: an analysis and and evaluation of taste*, New York: Basic Books, 1974).

62) 문세영, 『조선중등어사전』, 삼문사, 1948.

63) 「성인교육문제」, 『동아일보』, 1946년 2월 7일자.

식민지시기와 마찬가지로 ‘보통사람이 알 수 있거나 알아야 할’,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상식적인’이라는 의미를 여전히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화예술에서의 ‘통속’은 ‘저급하거나 저속한 것’을 지칭하며 “대중의 통속적 취향/취미”라는 용례로 굳어져갔다. 점차 ‘통속’은 후자의 의미로 변해갔으며 전자의 의미는 ‘대중’이라는 말로 대체되었다. 곧 긍정적 의미에서 “일반 대중이 향유하는 속성”이라는 의미는 ‘대중성’이 대신하고 ‘통속성’은 저급, 저속, 타락, 조락 등의 단어와 함께, 통속소설, 통속잡지 등의 명칭과 함께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제 ‘통속성’이라는 말은 ‘대중성’이라는 말에 그 의미의 상당부분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통속적’이라는 말은 ‘대중적’이라는 말보다도 더 하위의 저급한 것을 지칭하는 용어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정부 수립에서 전쟁기까지, 남한에서의 ‘통속성’은 ‘대중성’과 일정 부분 의미를 공유하기도 하고 ‘대중성’의 하위에 자리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재정되었다. 식민지시기와 같은 ‘보통’이나 ‘공통’의 의미가 점점 줄어들고, ‘저급’, ‘저속’, ‘비속’의 의미가 점차 커져갔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의 신분 하락(?)은 비단 ‘통속성’에 그치는 문제는 아니었다. ‘대중성’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중성’이나 ‘대중적’이라는 용어에는 두가지 시각이 들어있었다. 하나는 ‘대중성’과 ‘통속성’을 같은 것으로 보는 시각으로서, 이러한 시각에서는 ‘순수문학’ 대 ‘대중문학’이라는 대립항 속에서 ‘통속소설’이 ‘대중문학’의 대표적인 한 갈래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⁶⁴⁾ 이는 식민지시기 ‘인민 대중’이나 ‘무산 대중’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던 강한 주체성을 사상시키고, ‘대중’을 수동적이며 저속하고 저급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었다.⁶⁵⁾ 다른 하나는 ‘대중성’과 ‘통속성’을 구분하여 둘 사이에 위계를 설정하는 시각으로서, ‘대중성’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통속성’은 ‘저급하거나 저속한’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었다.⁶⁶⁾ 후자의 입장에 선 백철은 ‘대중성’을 근대 문학의 속성으로 보고 ‘대중성’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귀족주의라

64) 「통속의학강좌」, 『경향신문』, 1948년 7월 16일자.

65) 「에인」(1), 『경향신문』, 1954년 10월 1일자.

66) 김내성, 「대중문학과 순수문학」, 『경향신문』, 1948년 11월 9일자.

67) 조연현, 「민족문학의 당면과제」, 『국도신문』, 1950년 2월 28일자; 신형기 편, 『해방3년의 비평문학』, 세계, 1988.

68) 백철, 「순수소설과 정통소설-대중소설과는 삼각관계인가」, 『서울신문』, 1950년 5월 4~7일자.

고 비판하였고, 이에 대해 전자의 입장을 가진 조연현은 백철이 소설을 순수소설, 정통소설, 대중소설로 삼분함으로써 순수소설을 오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순수소설’=‘예술소설’ 대 ‘대중소설’=‘통속소설’이라는 대립항을 설정하였다.⁶⁹⁾ 하지만, ‘대중성’을 ‘통속성’과 같은 것으로 모든 다른 것으로 모든 양자는 모두 ‘통속성’을 ‘대중의 저급한 취향’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었다. 다만 ‘대중’과 ‘대중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느냐 부정적으로 인식하느냐의 차이는 있었다. 곧, ‘대중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대중성’과 ‘통속성’, 양자의 간극이 적지 않았지만, ‘통속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양자에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1950년대까지는 지식인의 담론 세계와 일상 매체에서 ‘통속’이 ‘저속’과 완전히 동의어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전히 일상개념으로서의 ‘통속’과 예술개념으로서의 ‘통속’이 어느 정도는 구별되어 사용되었다.⁷⁰⁾ 1950년대 중반, 경향신문에 실린 한 칼럼에는 ‘통속’과 ‘저속’을 같은 것으로 치부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저속한 것과 통속적이라는 말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실렸다. 이 칼럼은 ‘통속’은 ‘일반 세상의 풍속’, ‘모든 세상에 널리 통하는 것’이라는 뜻인 반면, ‘저속’이란 말은 사전에도 없다고 하면서 이 말이 생긴 것은 1935년경 이후부터라고 주장하였다. ‘통속’이란 세속의 모든 사람이 알기 쉬운 것을 말하므로, ‘통속적’이라는 것은 대중의 기반을 다졌다는 표시이기도 한데 비평가들이 ‘저속’과 ‘통속’을 혼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한 것이다.⁷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자유부인』(정비석, 1954) 등 신문연재 장편소설이 대중적으로 크게 히트하면서 불붙은 ‘통속성’과 ‘통속소설’에 대한 평론은 대부분이 ‘통속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일제시기 농민문학가 출신으로 친일을 거쳐 반공 문필가가 된 이무영은 ‘통속성’이란 독자성, 전형성, 영원성, 보편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학의 고전성이 결여된 것으로 진실성 없이 대중에 편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⁷²⁾ 1930년대부터 탐정소설을 신문에 연재했던 김내성은 ‘대중성’과 ‘통속성’을 구분하여 전자는 예술성이 있지만 후자에는

69) 조연현, 「본격소설에의 길」 상·중·하, 『경향신문』, 1950년 6월 6~8일자.

70) 1957년까지도 오늘날의 의학상식에 해당하는 용어로서 ‘통속의학’이라는 말이 여전히 쓰였던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통속의학」, 『경향신문』, 1957년 10월 26일자.

71) 「통속과 저속」, 『경향신문』, 1955년 7월 4일자.

72) 이무영, 「문학의 순수성과 통속성-대중성에 편승하는 통속성을 꾀함 상·하」, 『동아일보』, 1956년 7월 5~6일자.

예술성이 없다고 하면서 양자를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⁷³⁾ 심지어 단편소설=순수소설, 장편소설=통속소설이라는 이분법을 비판한 논자의 경우에도 여전히 ‘통속성’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⁷⁴⁾

일상개념으로서의 ‘통속’의 의미가 거의 사라진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이것은 애초에 계몽의 프로젝트였던 ‘통속교육’이 1950년대 전국민에 대한 의무교육제도 실시 및 고등교육의 확대 속에서 제도화되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 전국민이 학교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문화평등주의적 이상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종래의 ‘통속교육’이라는 말의 효용성이 낮아졌던 것이다. 반면, 1950년대말부터 대중문화가 폭발적으로 증대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통속’ 개념의 향배도 정해지게 되었다. 이 시기 ‘통속취향’, ‘통속작가’, ‘통속신파’, ‘통속오락’, ‘통속영화’, ‘통속활극’, ‘통속사극’, ‘통속 멜로드라마’ 등 ‘통속’과 결합한 대중문화의 여러 용어들이 빈번히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면서, 어느덧 ‘통속’은 예술개념으로서의 ‘통속’, 곧 저급과 저속의 의미로만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때 ‘통속성’의 내용으로는 감상, 한탄, 방탕, 음란 등이 지목되었다.⁷⁵⁾ ‘통속’과 ‘순수’를 대립항으로 설정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고 ‘통속성’을 옹호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우연성, 감상성, 교훈성, 자극성, 스토리성을 ‘통속성’의 내용으로 보는 것은 마찬가지였다.⁷⁶⁾ ‘통속문화’를 전통적인 민중의 문화(popular culture)로 보고, ‘대중문화’를 근대 이후의 매스컬처(mass culture)로 보는 서구학자들의 시각이 소개되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통속문화’와 ‘대중문화’가 가지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도, ‘통속문화’의 속성 규정은 역시 유사했다.⁷⁷⁾

1970년대 TV시대가 도래하자 TV드라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문화위계 담론이 더욱 강화되었고 저속성, 감상성, 퇴폐성이 대중문화의 본질을 이루는 통속성의 대표적 내용으로 지목되었다.⁷⁸⁾ 당시 대중사회 및 대중문화에 대한 담론이 활발히

73) 김내성, 「신문소설에 바라는 것 2-3-대중성과 통속성」, 『경향신문』, 1956년 5월 4-5일자.

74) 「통속소설이라는 관념」, 『경향신문』, 1961년 3월 26일자.

75) 「사극영화의 역작 폭군연산」, 『경향신문』, 1962년 2월 13일자.

76) 정창범, 「순수와 통속」, 『세대』 31, 1966, 244~249면.

77) I. 크리스톨, 「고급, 저급, 모던: 통속문화와 민주정체에 관한 고찰」, 『사상계』 93, 1961, 141~151면.

78) 이하나, 「1970년대 감성규율과 문화위계 담론 ‘통속’의 정치학과 권위주의체제」, 『역사문제연구』 30, 2013.

생산되면서⁷⁹⁾ 통속성은 대중성의 중요한 요소이거나 그 하위에 존재하는 특징으로 굳어졌다. 1980년대 이른바 3S정책이라 불리우는 대중문화 정책의 방향 속에서 ‘통속물’이 범람하면서 ‘통속’은 저질, 저급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음란과 퇴폐를 위주로 하는 하위문화의 대표적 속성이 되었다. 따라서 1980년대까지 ‘통속성’ 뿐만 아니라 ‘대중성’조차도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지 못했다. ‘대중’은 수동적, 물주체적이라는 인식이 지식인 사이에 널리 퍼져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립항으로서 역사적으로 ‘올바르고 바람직한’ ‘민중’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여 1980년대까지를 풍미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역사 주체의 발견에 힘입어 ‘민족문화’와 ‘민중문화’ 담론이 활발하게 일어나 저항적 문화운동을 견인하였다.⁸⁰⁾ 여기서 무오류성을 특징으로 하는 ‘민중성’의 대립항으로서 ‘대중성’ 개념이 재규정됨으로써 ‘대중성’은 민중의 역동성과 저항성을 탈각한 협소한 개념으로 이해되었고, ‘통속성’은 ‘민중성’이 가진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주체의 자각과는 하등 관련이 없는 개념이 되었다. 곧, ‘대중성’은 대중의 자본주의적 욕망을 부추기는 상업주의의 속성으로 치부되었고, ‘통속성’은 그 가장 하위에서 대중의 말초적이고 선정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탈정치화 전략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과거 문화평등주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속’ 개념이 역설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외치던 민주화운동의 한 가운데에서 그 주체들에 의해 가장 터부시되었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1987년 이후에는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민중’ 담론이 퇴색하고 다시 ‘대중’에 대한 재해석과 대중문화에 대한 재인식이 시작되었다. ‘대중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것에서 벗어나 ‘대중’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⁸¹⁾ 오히려 ‘대중성’ 부족이 문화작품의 결격사유로 하나로 이해되기도 했다.⁸²⁾ ‘대중문화’가 꽃피고 ‘대중성’이 재조명을 받게된 것과 대조적으로 여전히 ‘통속’이라는 개념은 부정적이고 극복해야할 무엇으로 남게 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 자주 등장한 ‘통속화’라는 개념은 ‘속물화’와 동의어로 쓰이기도 했지만, 고매하거나 엘리트적인 것을

79) 송은영, 「1960~1970년대 한국의 대중사회화와 대중문화의 정치적 의미」, 『상허학보』 32, 2011; 송은영, 「1960~1970년대 한국의 대중사회논쟁의 전개과정과 특성-1971년 대중사회 논쟁을 중심으로」, 『사이』 13, 2013.

80) 이하나, 「1970~1980년대 ‘민중문화’ 개념의 분화와 쟁투」, 『개념과 소통』 18, 한림과학원, 2016.

81) 「연극의 대중성 보인 신선한 무대」, 『매일경제』, 1989년 10월 26일자.

82) 「신춘문예 당선작 대중성 결여 느낌」, 『조선일보』, 1990년 2월 7일자.

대중의 수준으로 낮춘다는 의미도 갖고 있었다. 말하자면 과거의 민중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통속화’하여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구하려고 한다든지,⁸³⁾ 역사를 ‘통속화’하여 엘리트의 전유물이던 역사를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역사대중화를 꾀한다든지 하는 식이었다.⁸⁴⁾ 여기서 ‘통속화’라는 것은 ‘대중화’와 거의 동의어이면서도 이전처럼 저급, 저속, 저질의 의미로부터 많이 벗어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시기의 ‘통속화’와 식민지시기 일상개념으로서의 ‘통속화’라는 용어의 맥락을 살펴보면 그 뉘앙스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후자의 경우엔 제도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일반 대중의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의미가 있었고, 전자는 엘리트의 전유물이던 지식과 예술의 저변 확대라는 의미가 컸다. 문화 평등을 지향하는 것은 같지만 지향의 방법과 방향면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민주화 열기가 문화예술계를 휩쓸던 이 시기를 지나면 ‘통속화’라는 용어는 다시 재규정된다. 학계에서는 1990년대 초중반에 활발히 소개된 포스트 모더니즘의 연장선 속에서 대중문화와 ‘통속성’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바로 ‘통속성’을 ‘진지성’의 대립항으로 상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가 진지성의 추구에 실패했기 때문에 ‘통속화’된 것이 아니라 ‘통속성’을 적극적인 지향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⁸⁵⁾ 하지만 여전히 언론에서 대중문화를 비판할 때에는 어김없이 가벼움, 경박함, 非공익성 등을 ‘통속성’의 주요 특성으로 부각하며 이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⁸⁶⁾ ‘통속화’라는 용어가 가진 뉘앙스의 변화는 민주주의의 진전과 연동되어 나타난 현상임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엘리트주의와 위계적 사고방식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의 한 일간지는 ‘통속성’이 김정일이 즐겨쓰는 말이라고 보도하였다.⁸⁷⁾ 1950년대까지 남한에서도 즐겨 쓰던 일상개념으로서의 ‘통속성’은 이렇게 해서 완전히 망각되었다.

그런데, 남한에서의 ‘통속’이 식민지시기의 일상개념으로서의 ‘통속’과 예술개념으로서의 ‘통속’ 중에서 후자를 이어받아 오랜 시간 동안 부정적 관념으로 자리한

83) 「민중작가들 ‘변신」, 『경향신문』, 1991년 10월 7일자.

84) 「새 시각 외국 역사책 잇단 출간」, 『한겨레신문』, 1991년 5월 16일자.

85) 박성봉, 앞의 책, 53~62면.

86) 「뻔한 통속 멜로드라마」, 『한겨레신문』, 1997년 7월 22일자; 「안방극장 ‘통속’의 전성시대」, 『동아일보』, 2009년 1월 20일자.

87) 「쓰는 말도 김정일식대로」, 『조선일보』, 1996년 11월 11일자.

것은 단지 문학예술상의 개념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950년대까지 일상개념으로서의 ‘통속’의 의미가 남아있었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 1950년대가 감성적으로는 식민지시기의 연장선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문화평등주의의 결과적 평등 중시 정서가 어느 정도 살아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지향이 보다 확실해진 1960년대부터는 능력과 과정의 평등을 중시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점차 옮겨가면서 경쟁에 의해 서열이 매겨지는 사회계층화가 이루어졌다.⁸⁸⁾ 이렇게 해서 문화에 위계와 서열을 상상하는 것과 평등주의는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니게 되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는 평등하지만 지성과 부, 능력이 평등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평등이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의미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던 것과,⁸⁹⁾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는 어쩔 수 없이 위계와 서열이 존재하고 그것은 문화도 마찬가지라는 논리는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평등주의는 애초의 자기 정의와 이상을 배반한 채, 어느새 불평등을 변호하는 논리가 되었다. 이처럼 ‘통속’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는 문화평등주의의 감수성 변화와 연동된 것이다. 현재 남한사회에서 ‘통속’이라는 용어를 거의 쓰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민주화의 결과 문화 위계 담론이 ‘표면적으로는’ 거의 사라지면서 대중예술의 ‘통속성’이 드디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신호이면서, 나아가 초창기 문화평등주의가 가졌던 이상이 구현될 수 있는 조건에 더욱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엘리트 비평가들의 대중문화에 대한 저평가의 시선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적/신자유주의적 현실 세계를 마주하는 대중들의 정서적 반응과 미적 감수성에 대한 은근한 폄훼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통하는’, ‘일반 대중에게 통용되는’이라는 식민지시기 일상개념으로서의 ‘통속’ 개념이 지속적으로 계승되었다. 따라서 ‘통속’은 긍정적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인민들이 추구해야할 무엇으로 자리잡게 된다. 1949년 김일성은 북조선문화예술인대회에서 “담화와 강연을 자주 조직하며 자연과 사회발전의 법칙을 통속적으로 해설한 도서를 많이 출판하여 근로자들 속에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⁹⁰⁾ 여기서 ‘통속적으로 해설’했다는 것은 인민이

88) 조원선, 「1960년대 박정희 평등주의 교육개혁의 정치성 연구: 무한경쟁체제와 사회계층화」,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8.

89) 「인간은 날 때부터 평등하며」, 『동아일보』, 1962년 12월 7일자.

알기 쉽게 설명했다는 뜻으로, 식민지시기의 일상개념으로서의 ‘통속’ 개념을 계승한 것이었다. 1959년 창간한 대중교양잡지 『공산주의교양실』은 ‘대중 통속 월간잡지’로 규정되어 대중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교양 전파를 목적으로 하였으며,⁹¹⁾ 1961년에 출판된 전기에 관한 교양서적 역시 ‘통속서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⁹²⁾

그런데, 이러한 북한에서의 ‘통속’은 비단 일상개념으로서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개념으로서도 그 긍정성을 확장시킨 개념이 되었다. 1960년대 혁명가요를 창작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경구는 “인민들의 감정에 맞고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는 통속적이면서도 혁명적 내용이 풍부한 혁명가요”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절이었다.⁹³⁾ 여기서 ‘통속’은 ‘인민의 감정에 맞는 것’과 ‘인민들이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것’이라는 양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통속’의 의미는 ‘통속성’을 가늠하는 조건이기도 했다. 특히 혁명가요 창작에 있어서 인민들이 즐겨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전문 예술인들이 무대에서 부를 노래는 많은데 광범한 인민들이 부를 노래는 얼마 없다는 것이다. ‘인민들이 즐겨 부를 수 있는 노래’의 조건은 우선 노래의 곡조가 부르기 쉬워 널리 보급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부를 수 있어야 하며, 부를수록 흥겹고 용기가 나서 더욱 부르고 싶은 노래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인민의 감정에 맞는 노래’의 조건은 인민들의 생활과 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한 것이라야 한다. 곧 생활을 떠난 노래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이다.⁹⁴⁾

이러한 ‘통속’과 ‘통속성’ 개념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인민’이라는 개념이었다. ‘통속적’인 것은 바로 ‘인민적’인 것이었고, 이는 ‘통속성’이 ‘인민성’ 개념과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북한에서 ‘인민’은 남한의 ‘국민’과 상응하는 말이지만 ‘국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호에도 등장하듯이 ‘인민’은 국가의 체제와 운영 원리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것은 ‘인민’으로 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⁹⁵⁾ 따라서 ‘통속성’은 ‘인민성’의 중요한 속성이라고

90) 「문화선전사업을 강화하며 대외무역을 발전시킬 데 대하여」, 1949, 『김일성저작집』 5,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154면.

91) 「공산주의교양실 창간」, 『로동신문』, 1959년 3월 5일자.

92) 「전기에 관한 통속 서적, 인민 경제와 전기 공업을 출판」, 『로동신문』, 1961년 11월 30일자.

93) 「혁명적 대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 1963, 『김일성저작집』 17, 1982, 491면.

94) 「깊이있고 내용이 풍부한 영화를 더 많이 창작하자」, 1966, 『김일성저작집』 20,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293~294면.

할 수 있다. 곧 인민의 감정에 맞고 인민이 쉽게 이해하며 따라할 수 있는 예술은 ‘통속성’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인민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인민성’이라는 말은 이미 해방직후부터 사용되던 말이지만,⁹⁶⁾ 그 내용이 공식적으로 천명된 것은 1950년대 후반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이라는 문화예술의 3대 원칙이 제시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⁹⁷⁾

‘인민성’은 ‘인민이 좋아하는 것’을 뜻한다는 점에서는 남한의 ‘대중성’과 같은 개념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에서도 ‘대중성’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서의 ‘대중’은 식민지시기 사회주의자들이 운위하였던 ‘인민 대중’, ‘무산 대중’이라는 의미의 ‘대중’과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북한에서 ‘대중성’은 단순히 대중이 좋아하고 즐긴다는 의미인 반면, ‘인민성’은 좀더 정치적이면서 미학적 개념이다. ‘인민’은 국가의 구성원이자 혁명성을 체현한 존재로서, ‘인민성’이란 그러한 “인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인민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문학예술을 형상화하는 것”을 뜻한다. ‘인민성’의 기준은 작품이 인민들의 생활감각과 정서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에 있으며, 무엇보다 “인민의 감정을 체현”하는 것이다.⁹⁸⁾ 따라서 ‘인민성’은 대중이 좋아하는 것을 뜻하는 ‘대중성’과 인민이 가지고 있는 성격, 혹은 갖추어야 할 덕목인 ‘인민됨’과 ‘인민다움’의 의미를 모두 내포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인민성’과 ‘통속성’의 관계가 좀더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1967년 김일성 유일체제가 확립된 이후부터이다. 1970년대는 주체주의를 문화예술 속에서 구현하는 것에 힘을 쏟으며 『영화예술론』(김정일, 1973)과 5대 혁명가극 같은 정전들이 쓰여지고 제작된 시기이다. 1970년 김일성은 “혁명가요에서 인민성의 요구를 해결함에 있어서

95) ‘인민’ 개념에 대해서는 주로 발생사적 연구가 많으며 북한 ‘인민’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주로 초창기에 집중되어 있다. 김성보, 「남북국가 수립기 인민과 국민 개념의 분화」, 『한국사연구』 144, 2009; 박명규, 『국민·인민·시민: 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 2009; 송호근, 『인민의 탄생: 공론장의 구조 변동』, 민음사, 2011; 김정인 외, 『19세기, 인민의 탄생』, 민음사, 2015; 한성훈, 『전쟁과 인민: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성립과 인민의 탄생』, 돌베개, 2012.

96) 여상임, 「해방기 좌익측 민족문학론의 인민성 담론과 초코드화」, 『한국문예비평연구』 37, 2012.

97) 「영화는 호소성이 높아야 하며 현실보다 앞서나가야 한다」, 『김일성저작집』 12, 1958,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1, 11~13면; 김정웅 외,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이론-문예학 3』, 사회과학출판사, 1996.

98) “세계청년학생예술축전에 참가하였던 예술인들 앞에서 한 연설,” 1951, 『김일성저작집』 6,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521면.

특히 중요한 것은 통속성을 철저히 구현하는 문제”라고 하면서 ‘통속성’을 강조하였다. 곧 “가요에서 ‘통속성’을 구현하는 것은 가요가 광범한 인민대중에게 불리우는가 안 불리우는가, 따라서 그 전투적 기능을 실생활에서 발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를 좌우하는 기본 열쇠”라는 것이다. 혁명가요 창작에서 인민성을 획득하기 위해 대중적 지혜를 결합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통속성’이라고도 하였다.⁹⁹⁾ 남한의 ‘대중가요’에 해당하는 ‘통속가요’ 창작에서는 예술성과 사상성이 잘 결합되어야 하는데, ‘통속성’을 어떻게 잘 결합시키느냐가 그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¹⁰⁰⁾ 심지어 ‘통속성’은 북한 “가요예술이 이룩한 커다란 성과”로까지 인식되었다. 김일성이 제시한 “노래는 반드시 통속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독창적인 미학사상”에 따라 “노래의 통속화는 우리 당 음악정책의 주요한 요구”라고 인식되었다.¹⁰¹⁾

이 시기 문화예술을 총괄한 김정일도 “통속성은 인민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징표”라고 하였다.¹⁰²⁾ 가요를 창작할 때 투쟁감이 나면서도 부드럽고 소박하고 생동감이 있는 것, 곧 ‘통속성’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주체가극’의 고전이라 일컬어지는 <피바다>는 “주체가극 건설의 기본 원칙인 인민성과 민족적 특성, 통속성을 옹계 구현하는 것을 기본 과업으로” 내세웠다.¹⁰³⁾ ‘통속’ 개념이 계승적 차원을 넘어 개조적 차원으로 나아간 것이다. 여기서 개조란 사회주의적 개조이자, 동시에 주체주의적 개조이다. ‘통속’ 개념이 ‘인민성’과 만나는 순간, ‘통속성’이란 ‘인민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던 것이다. 작품이 ‘통속성’을 발휘할수록 ‘인민성’이 더욱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인민성’이 참다운 ‘인민성’으로 된다는 것이다.

또한, ‘통속적’인 예술은 인민의 생활감정에도 맞아야 하지만 현대적 미감에도 맞는 예술이다. “노래를 민족적 정서가 흐르면서도 현대적 미감에 맞게 통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교시는 ‘통속성’을 갖추는 것이 현대적 미감을 충족시키는 기본

99) 「항일혁명가요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 통속적이며 혁명적인 가요예술을 더욱 발전시키자」(1), 『조선예술』, 1970.7, 68면.

100) 김명규, 「혁명적이며 민족적인 통속가요 창작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 『조선예술』, 1971.4, 69면.

101) 김길남, 「혁명적이고 민족적이며 통속적인 가요창작의 길」, 『조선예술』, 1972.3, 38면.

102) 「사회주의 현실을 반영한 혁명적 영화를 더 많이 창작하자」, 1970, 『김정일선집』 2,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101면.

103) 「혁명가극 <피바다>는 우리 식의 새로운 가극」, 1971, 『김정일선집』 2,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293면.

조건임을 보여준다.¹⁰⁴⁾ 현대적 미감이란 주체미학에서 중시하는 현실에 대한 미학적 태도가 동시대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주체미학은 현실에 대한 미적 파악 능력으로서의 심미감이 사회적 역사적 발전의 산물이라는 이전 시기의 맑스레닌주의 미학과 달리,¹⁰⁵⁾ 사람의 요구를 모든 심리적 현상의 기초로 보고 미의식의 형성과 작용 역시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자가 미의 물질성을 밝히는 데에 주력했다면 후자는 모든 미적 현상을 가치론적 방법론으로 전환시킨 것이었다. 예술을 인간에 복무하는 인간학으로 취급하고, 사람/인민대중의 요구와 감정 정서에 맞게 예술을 창조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주체미학의 주요한 목적이었다.¹⁰⁶⁾ 주체미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통속성’의 실현이야말로 인민적 가치와 현대적 미감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이다.

이처럼 북한에서 ‘통속’이 예술적 미학적 개념으로 널리 쓰이는 동안에도 일상개념으로서의 ‘통속’의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다. 일례로, 글은 항상 ‘통속화’된 글을 써야 한다. ‘통속화’된 글이란 인민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글을 말한다. 글을 ‘통속적’으로 쓰려면 기자, 편집원들을 비롯하여 글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글을 알기 쉽게 쓰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예컨대 문장을 복합문으로 쓰지 말고 단순문으로 짧게 써야 한다든지 외래어를 쓰지 말고 고유조선어를 써야 한다든지, 말하듯이 글을 써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통속화’된 글을 위한 실천의 예시로 제시되었다. 말하자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글에서는 기름냄새가 나고 농민을 대상으로 한 글에서는 흙냄새가 나야 한다”는 것인데, 그림에도 불구하고 ‘통속화’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은 첫째,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글을 쓴다는 자각이 부족하고, 둘째, 혁명적 군중 관점이 바로 서있지 못하며, 셋째, 모르면서 아는 체하는 ‘체병’ 때문이라고 한다.¹⁰⁷⁾ 곧 ‘통속화’란 고매하고 많이 아는 지식인들의 언어가 아닌 노동자, 농민 등의 근로인민들을 위해 글을 보다 쉽게 쓰는 것을 의미한다. 엘리트주의를 벗어나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통속화’라는 것인데,¹⁰⁸⁾ 지식인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이 전제되었다는 점에서 초기의 일상개념으로서의 ‘통속’으로 단순

104) 「음악 창작 방향에 대하여」, 1968, 『김정일선집』 1,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401면.

105) 김창석, 『미학개론』, 조선미술사, 1959, 50~53면.

106) 김정본, 『미학개론』, 사회과학출판사, 1991, 15~24면.

107) 림평길, 「대중화, 통속화된 글들」, 『문화어학습』, 1988.2, 26~27면.

108) 「통속화된 군중가요들을 많이 창작」, 『로동신문』, 1990년 5월 6일자.

히 회귀했다기 보다는 1990년대 남한에서 잠시 사용되었던 ‘통속화’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북한에서 ‘통속성’의 내용은 주체예술이 시작된 1967년을 경계로 좀더 미학화되고, 정치화(精緻化/政治化)된다. 곧 이전의 ‘통속성’은 단순히 인민이 좋아하는 성질이라는 의미가 강했다면 이후의 ‘통속성’은 ‘인민성’을 체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되었다. 그 조건은 첫째, 인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인민의 생활감정에 맞아야 하며, 셋째, 인민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 이때 인민은 국가 구성원 일반으로서의 인민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주체적으로 각성된 인민을 말한다. 따라서 ‘통속성’은 인민이 좋아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인민이 좋아해야 마땅한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문화평등주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북한의 ‘통속성’ 개념은 초창기에 문화평등주의가 가졌던 결과론적 평등론, 곧 인민 전체가 누구나 평등하게 같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과 정서에 일관적으로 기반하고 있다.

북한은 토지개혁과 민주주의개혁을 거치면서 평등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식민지시기의 교육 불평등을 극복하고자 초창기부터 교육 기회의 균등 배분에 주력한 결과 1948년에 이미 초등학교 취학률이 94.6%에 다다랐다.¹⁰⁹⁾ 1972년의 사회주의헌법에는 문화평등주의와 관련한 조항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 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는 조항이다.¹¹⁰⁾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초창기 문화평등주의의 이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물론 현실의 북한에서 위계가 서열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전국민 무상교육 실시라는 이상이 실제로는 항일혁명투사의 유가족이나 극빈층 학생 등에게만 우선적으로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바뀐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등 지향의 사회주의 북한 역시 어떤 기준으로든 위계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¹¹¹⁾ 하지만, 적어도 문화적으로는 평등주의 관념이 공유되고 있어 문화에 등급이

109) 이항규, 「북한 사회주의 보통교육의 형성 1945~1950」,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0, 120~123면.

110) 1998년 개정안에서는 ‘문화기술수준’이 ‘문화예술수준’으로 변경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조선중앙년감』, 조선중앙통신사, 1999.

111) 사회주의 국가 일반 및 북한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성로, 『북한 사회불평등구조의 성격과 심화과정』,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06.

있다는 식의 위계 관념 같은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북한에서 문화예술은 ‘온전히’ 인민의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남한의 평등주의가 과정의 평등을 중시하며 결과의 평등에는 무관심한 것과 달리 북한의 평등주의는 결과의 평등에 더 집중한다는 것은 적어도 문화면에서는 사실일 것이다. 북한의 ‘통속성’ 개념이 이를 시사하고 있다.

V. 결론: 감성의 분단과 두 개의 평등주의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통속’이란 개념은 처음엔 근대 제도교육 바깥을 포괄하는 공공적 계몽 프로젝트로서 문화평등주의의 실천 방략으로 시작되었다. ‘통속’은 ‘보통’, ‘누구에게나 통하는’ 등의 일상개념으로 출발하였으나, 곧 문화예술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이 예술개념으로서의 ‘통속’은 1930년대 중반 이후 현저하게 ‘저급’과 ‘저속’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일상개념으로서의 ‘통속’과 예술개념으로서의 ‘통속’은 해방후 각각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 전개되었다. 북한에서는 ‘통속’의 긍정적 의미가 확대되어 문화예술에서도 ‘통속성’이 지향되었으나, 남한에서는 ‘통속’의 긍정적 의미가 사상되고 부정적 의미로만 사용되어 ‘통속성’은 지양되어야 할 무엇으로 치부되었다. 북한에서 ‘통속성’은 ‘인민성’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여겨진 반면, 남한에서는 ‘통속성’의 문제가 ‘대중성’과 함께 거론되어 ‘대중성’에 포함되어 이해되기도 하고 ‘대중성’의 하위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어느 쪽이든 ‘통속성’은 대중의 저급한 취향을 뜻하는 말로서 부정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다가 199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잠시나마 ‘통속화’가 대중화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용례가 있다. 이는 북한에서 ‘통속화’가 문화에서의 엘리트주의를 비판하는 논리로 쓰인 것과 매우 유사한 용례로서, 남북이 개념의 교집합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대중 누구나 계몽과 각성을 통해 높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는 초창기 문화평등주의의 이상은 결과의 평등과 과정의 평등이라는 두 개의 결이 다른 평등주의가 결합된 것이었으며, 점차 전자에서 후자로 강조점이 옮겨갔다. 일상개념으로서의 ‘통속’이 대중의 성장을 전제로 결과의 평등을 중시하는 평등주의 감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문화예술 개념으로서의 ‘통속’은 지식인과 대중 사이의 위계를 전제

로 기회 균등이라는 과정의 평등에 치중한 평등주의 감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남한은 후자의 길을, 북한은 전자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남북은 두 개의 ‘통속’ 개념, 곧 두 개의 평등주의를 갖게 되었다. 남한은 능력주의가 기반이 되어 현실의 불평등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문화에 등급과 서열이 있다는 문화위계 담론을 양산함으로써 권위주의 체제의 감성적 지배 논리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북한은 일상 개념으로서의 ‘통속’이 가진 긍정성을 문화예술 개념에까지 확장시킴으로써 결과의 평등을 중시하는 문화평등주의의 이상을 구현하는 데에 주력했다. 하지만 남한에서 문화위계 담론이 강했다고 해서 대중 정서로서의 평등주의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오히려 교육과 경쟁을 통해 서열의 윗자리를 차지하고픈 평등주의의 열망은 더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적어도 문화적으로는 평등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방법은 철저히 국가와 당(수령) 주도의 것이었다는 점에서 문화의 획일화를 피할 수 없었다.

요컨대, 남과 북에서 ‘통속’이란 개념이 정반대의 가치 관념을 가진 채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 ‘통속’의 세계와는 구별되는 더 ‘상위’의 세계를 전제하고 있거나 떠올리게 한다는 점은 남북이 공통된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통속’이란 더 이상 전근대적 신분사회가 아닌, 이전보다 더 평등해진 새로운 근대 사회를 맞이하는 엘리트들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것은 근대의 계몽주의적 기획의 주체가 계몽의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표현인 것이다. 곧 ‘통속’은 근대사회의 평등주의 및 민주주의의 진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그 안에 정반대의 위계성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인 것이다. 특히, 남한에서의 ‘통속’ 개념, 곧 현실에 대한 대중의 심미적 태도에 대한 무시와 그 표현인 대중문화에 대한 폄하, 대중의 취향은 저속하며 대중의 문화는 지배층의 문화보다 저급하다는 인식, 대중의 감성은 지배계급이 규율하고 계도해야 한다는 발상 등은 서열주의, 권위주의의 대표적인 감성적 기반이 되었다. 북한에서의 ‘통속’ 개념은 일반 인민의 생활세계, 생활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념적 지향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남한의 그것과 구별되지만, 인민 대다수와 분리된 지배층(수령/당), 지식인, 예술창작인을 여전히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계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따라서 ‘통속’은 평등과 위계라는 상반된 논리를 한 몸에 내포한 모순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개념의 등장과 변화는 용어 자체의 변천에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그 변화의 과정이 정치적 사회적 정신적 심성적 변동의 지표이자 은유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제이다. 개념의 분단사를 연구하는 것은 하나의 개념이 분단이라는 시대적, 장소적 규정력 속에서 그러한 환경을 만들고 살아가는 남북한 주체들의 변화하는 사유와 감성을 내포하는 또다른 의미로 재규정되어가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다. 이 글은 개념을 생각과 정서가 결합된 사회적 감성의 표상으로 바라보면서 감성의 분단사를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긴 시기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개념의 분화와 분단을 살피다 보니 문화평등주의, 대중성, 인민성 등 주요 개념 각각의 시기별 논리와 실례에 관한 더 정밀한 분석까지는 담아내지 못했다. 이것들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공립신보』, 『대한매일신보』, 『대한자강회월보』, 『한성순보』, 『황성신문』
『경향신문』, 『국도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매일신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개벽』, 『사상계』, 『세대』, 『학지광』
『김일성저작집』, 『김정일선집』, 『조선중앙년감』
『로동신문』, 『문화어학습』, 『조선예술』
문세영, 『조선중등어사전』, 삼문사, 1948
김창석, 『미학개론』, 조선미술사, 1959
김정본, 『미학개론』, 사회과학출판사, 1991
『문학대사전 4』, 사회과학원, 2000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2019
- 구갑우 외, 『한(조선)반도 개념의 분단사 : 문학예술편 1~3』, 사회평론, 2018
김성경, 『갈라진 마음들, 분단의 사회심리학』 창비, 2020
김승동 편, 『불교 · 인도사상사전』, 부산대 출판부, 2001
김정인 외, 『19세기, 인민의 탄생』, 민음사, 2015
나인호, 『개념사란 무엇인가』, 역사비평사, 2011
박명규, 『국민 · 인민 · 시민: 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 2009
박성봉, 『대중예술의 미학-대중예술의 통속성에 대한 미학적인 접근』, 동연, 1995
소래섭, 『에로 그로 년센스-근대적 자극의 탄생』, 살림, 2005
송호근, 『인민의 탄생 : 공론장의 구조 변동』, 민음사, 2011
_____, 『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 삼성경제연구소, 2006
신형기 편, 『해방3년의 비평문학』, 세계, 1988
장 신, 『조선 · 동아일보의 탄생: 언론에서 기업으로』, 역사비평사, 2021
정연태, 『식민지 민족차별의 일상사-중등학교 입학부터 취업 이후까지』, 푸른역사, 2021
정태석, 『한국인의 에너지, 평등주의-평등주의와 서열주의의 모순적 공존』, 피어나, 2020
한성훈, 『전쟁과 인민 :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성립과 인민의 탄생』, 돌베개, 2012
허버트 J. 겐스, 강현두 역, 『대중문화와 고급문화: 현대문화의 사회학적 분석』, 1977. (Gans, Herbert J., *Popular culture and high culture: an analysis and and evaluation of taste*, New York: Basic Books, 1974)
W. 타타르키비츠, 손효주 역, 『미학의 기본 개념사』, 미술문화, 1999. (W. Tatarkiewicz, *A History of Six Ideas: An Essay in Aesthetics*, PWN-Polish Scientific Publishers-

Warsaw, 1980)

邱偉雲, 『中國近代平等觀念的形成(1895-1915)』,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2015

강용훈, 「통속 개념의 변천 양상에 대한 역사적 고찰」, 『대동문화연구』 85, 성균관대 대동문화 연구원, 2014

김남희, 「흠흠신서와 평등권에 대한 담론」, 『법학논총』 30, 법학연구소, 2013

김성보, 「남북국가 수립기 인민과 국민 개념의 분화」, 『한국사연구』 144, 2009

김인수, 「역사적 평등주의 또는 평등주의의 종말?」,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논문집』, 2017

송은영, 「1960~70년대 한국의 대중사회화와 대중문화의 정치적 의미」, 『상허학보』 32, 2011
_____, 「1960~70년대 한국의 대중사회논쟁의 전개과정과 특성-1971년 대중사회 논쟁을 중심으로」, 『사이』 13, 2013

여상임, 「해방기 좌익측 민족문화론의 인민성 담론과 초코드화」, 『한국문예비평연구』 37, 2012

이경구, 「18세기 ‘時’와 ‘俗’ 관련 용어의 변화와 그 의미」, 『한국실학연구』 15, 한국실학학회, 2008

이상임, 「동학·천도교에 있어서 남녀 평등의 문제-여성 교령의 피택 가능성에 대한 논의」, 『동학학보』 52, 동학학회, 2019

이성로, 『북한 사회불평등구조의 성격과 심화과정』,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06

이하나, 「1970년대 감성규율과 문화위계 담론 - ‘통속’의 정치학과 권위주의체제」, 『역사문제 연구』 30, 2013

_____, 「1970~80년대 ‘민족문화’ 개념의 분화와 쟁투」, 『개념과 소통』 18, 한림과학원, 2016

_____, 「일제하 활동사진/영화대회를 통해 본 식민지 대중의 문화체험과 감성공동체」, 『한국 문화』, 2018

이향규, 「북한 사회주의 보통교육의 형성 1945~1950」,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0

장 신, 「1930년대 언론의 상업화와 조선동아일보의 선택」, 『역사비평』, 2005.2

정종원, 「개항기 한글 신문의 평등 개념 연구-독립신문과 제국신문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129, 한국사학회, 2018

_____, 「반계 유형원의 평등사상과 도덕국가체제론」, 『민족문화연구』 75, 2017

조원선, 「1960년대 박정희 평등주의 교육개혁의 정치성 연구 : 무한경쟁체제와 사회계층화」,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8

한기형, 「노블과 식민지-염상섭 소설의 ‘통속’과 ‘반통속」, 『대동문화연구』 82, 성균관대 대동 문화연구원, 2013

허 수, 「1920~30년대 식민지 지식인의 ‘대중’ 인식」, 『역사와 현실』 77, 한국역사연구회, 2010

The Conceptual Differentiation/Division of *T'ongsoksŏng* and the Cultural Egalitarianism

Lee, Ha-na

This article examines the historical transition process of the concept of *'tongsok'*(popularity), one of the concepts that has been constantly mentioned and redefined in the field of culture, arts and entertainment during the period from colonial period to the 1990s through liberation. It aims to reveal that the division of the North and the South is not only the division of the country, the division of the system, but also the division of the concept, and further the division of affect. The concept of *'tongsok'* during the colonial period initially began with the concept of life such as 'normal' and 'connected to everyone', but since the mid-1930s, *'tongsok'* as an art concept remarkably understood the meaning of 'low grade' and 'low taste'. *'tongsok'* as a concept of life and *'tongsok'* as an artistic concept were developed into North Korea and South Korea respectively after liberation. In North Korea, the positive meaning of *'tongsok'* was expanded to the culture and arts, but in South Korea, the positive meaning of *'tongsok'* was thought and used only as a negative meaning, so *'tongsok'* was regarded as something to be avoided. In North Korea, *'tongsok'* was regarded as an important content of *'inminsŏng'*, whereas in South Korea, the issue of *'tongsok'* was discussed along with *'taejungsŏng'* and understood as being included in *'taejungsŏng'* and understood as subordinate to *'taejungsŏng'*. It also became, either way, *'tongsok'* has been used negatively as a term referring to the poor taste of the public. As the notion of equality entered Korean society in the early 20th century, cultural egalitarianism emerged, saying that anyone in the public could enjoy a high level culture through enlightenment and awakening, and the activation of *'tongsok gyoyuk'* at that time came from this atmosphere. From the point of view of equality, at first, equality of outcomes was emphasized, but the emphasis gradually shifted toward equality of process. While *'tongsok'* as a concept of life is based on an egalitarian sentiment that emphasizes equality of outcomes on the premise of the growth of the public, *'tongsok'* as a concept of culture

and art is based on a process of equal opportunity on the premise of a hierarchy between intellectuals and the public. It was based on an egalitarian sensibility that values equality. By choosing the latter for South and the former for North Korea, the South and North have two concepts of '*t'ongsok*', or two kinds of egalitarianism.

Key Words : conceptual history, history of conceptual division, history of affectual division, affect, division, popularity, *t'ongsok*, *t'ongsoksŏng*, *t'ongsokhwa*, *taejung*, *taejungsŏng*, *inmin*, *inminsŏng*, popular culture, mass culture, equality, equalitarianism, cultural equalitarianism, cultural hierarchy

